

2018

제6호

발간년월 2018년 10월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감 수 하동우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인 양창호

홈페이지 www.kmi.re.kr

해조류 국제양식규범확산에 따른 국내 김산업 수용태세 분석¹⁾ -ASC 인증제를 중심으로-

이상철 양식어촌연구실 전문연구원
(yi1@kmi.re.kr/051-797-4576)

마창모 양식어촌연구실 실장
(mcm1866@kmi.re.kr/051-797-4581)

김세인 양식어촌연구실 연구원
(sein87@kmi.re.kr/051-797-4575)

윤미경 양식어촌연구실 연구원
(mkyoon@kmi.re.kr/051-797-4577)

2011년 FAO가 국제양식규범으로서 지속가능 양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양식 인증제가 출현·확산되고 있다. 특히 수산양식책임관리회(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ASC)인증은 대표적인 지속가능 양식 인증으로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북미 및 아시아 지역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지속가능 양식에 대한 시장의 변화 움직임²⁾에도 불구하고 국내 양식업계의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 전복, 미역, 굴 양식 어가에서 시험적으로 ASC 인증 취득을 모색하고 있지만 과거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정립된 기존 양식 방법으로는 지속가능 양식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양식 수출품목인 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 양식 체제 수용태세를 파악하기 위해 ASC 해조류 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국내 김산업의 각 양식방법별로 지속가능도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ASC 해조류 양식 기준을 국내 김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목표 시장, 비용, 종문제, 활성처리제 문제, 해조류 가공 유통 부문의 관리연속성(Chain of Custody, CoC) 인증 취득 선결화 등 5가지 선결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국내 여건을 분석하였다. 목표시장의 경우 현재 김산업의 특성이 점차 수출 주도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외 친환경 제품 시장이 목표 시장이 될 수 있다. 비용문제의 경우 그룹 인증의 도입과 국내 인증 심사 기반이 확보될 경우 인증 비용 저감 여지가 높고, 양식종의 문제도 국내 정착 품종이 다수 있으며 고유종을 활용한 종자 개발이 완성단계에 있어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김양식 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활성처리제 사용 문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위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일부 유기산이나 자연유래 활성처리제(전해수 및 고염수)등 국내 활성

1) 본 요약 내용은 이상철의 『수산양식,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KMI 동향분석, 2018'의 주요내용과 본 보고서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것임.

처리제 사용 특성을 인증 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ASC측과 논의가 필요하다. ASC 인증의 가공과 유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양식장 생산 인증과 함께 물김가공 및 조미김 생산에 대한 ASC CoC인증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이 같은 5대 선결조건이 충족된다는 가정하에서 지주식, 노출부류식, 비노출부류식 등 국내 김양식 방법에 대한 ASC 적용성 평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모든 김양식 방식이 ASC 인증을 취득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ASC 해조류 양식의 환경적 영향 부분이었다. 환경 영향 부분의 25개 항목 중 2개 이하의 항목이 기준 미달될 때에는 조건부 인증 승인이 가능하지만 국내 김양식은 세 가지 방법 모두 5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달된 항목을 살펴보면 환경 자체적인 요소가 아닌 모두 제도와 운영에 관련된 항목이다. 그러므로 환경요소를 고려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김 양식에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협조를 통해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양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첫째 양식개선 프로그램(AIP)의 도입이 필요하다. AIP는 지역 양식어가, 조합, 환경 관련 NGO, 정부 당국자, 과학자 등이 모여 지역 양식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사회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ASC 인증 기준 충족을 위한 로드맵 마련, 펀드레이징, 역할 분담, 이행 투명성 확보 등 지속가능 양식 기반 마련을 위한 포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식수산물의 민간인증 기준 제정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2019년 3월 예정인 ASC 해조류 기준의 개정 및 그 후 정기 개정 절차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내 김양식의 특성을 ASC 인증기준에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새로운 인증제의 창설도 고려해 볼 수 있다. ASC 인증이 고비용 구조의 인증제임을 감안할 때, 국제양식규범에 기반한 저비용·민간주도형 지속가능 양식 인증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월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점을 중심으로 지속가능 양식 수산물 취급 확대 및 관행 양식수산물의 단계적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음.

국제양식규범 준수를 위한 지속가능양식 인증제 확산

■ 지속가능 양식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 양식생산 인증제 확대

- UNFAO의 'technical guidelines on aquaculture certification' 등이 대표적인 국제양식 규범이며 동물복지, 식품안전, 환경문제, 사회경제적 요소(윤리 및 노동 문제를 포함) 등을 포함하고 있음. 글로벌 양식업계는 지속가능양식 인증 기준을 설정하여 산업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음
- 기존 양식 생산 인증제의 경우 유기농 인증 목적이 강했으나 지속가능양식의 경우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음

표 1. 지속가능 양식 관련 인증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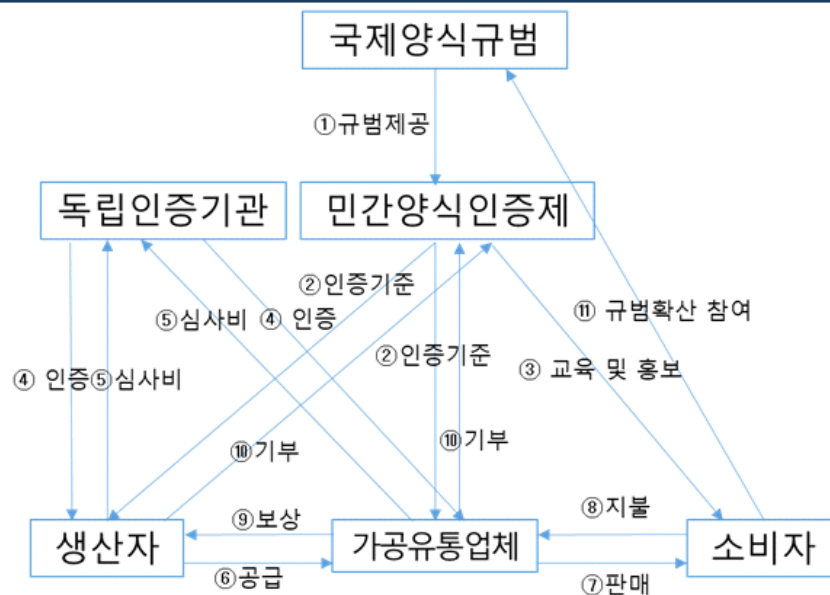
인증 주체	지리적 적용범위	중점 인증 목표
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ASC)	글로벌	지속가능성
Friend of the Sea	글로벌	환경
EU Organic	글로벌	유기농
Soil Association	영국	유기농
USDA Organic	미국	유기농
IOFAG	아일랜드	유기농
Naturland	글로벌	유기농/사회적 책임성
Seafood Watch	글로벌	환경
AFRISCO	남부 아프리카	유기농
KRAV	스칸디나비아	유기농
Organic Pasifika	태평양	유기농
Organic Farmers and Growers	영국	유기농
ECOCERT	프랑스	유기농
AsureQuality	뉴질랜드	유기농
FairWild	글로벌	유기농/사회 책임성
Standards Council of Canada	캐나다	유기농

자료: <http://seagriculture.eu/wp-content/uploads/seagriculture.eu/2016/10/2.2-Dan-Hoggarth-Development-of-a-joint-MSC-ASC-standard.pdf> (2018. 6. 1. 검색)

■ 지속가능양식 인증제는 상품 구매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기존 양식을 지속가능한 양식으로 변화 촉진

- 소비자는 지속가능양식 인증 수산물 구매를 통해 지속가능양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지를 표명하고 동시에 양식업자는 소비자 선택을 통해 지속가능양식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음. 이러한 선순환 메커니즘은 기존양식을 지속가능양식으로 변환시키는 원동력임

그림 1. 소비자 참여형 인증제를 활용한 지속가능양식 전환 모형



자료: ASC 인증제 사례를 적용하여 저자 직접 작성

* ASC 로고 사용에 대한 대가는 로고 사용자가 기부형식으로 지불

■ ASC, 대표적인 지속가능양식 인증제로 정착

- 2010년 비영리 독립기구인 수산양식책임관리회(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ASC)는 세계자연기금(WWF)과 지속가능 무역 이니셔티브(IDH)가 공동 설립하였음. ASC는 수산자원의 남획과 양식 과밀화로 인한 해양 오염 및 생태계 파괴 방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양식을 추구하는 것이 주요 사명임
- ASC 기준은 각 양식장의 활동을 환경적, 사회적 요구조건에 맞추어 평가하며, 인증 절차는 독립된 제3자 단체가 진행하고 결과 보고서는 ASC 웹사이트에 공개됨. ASC 로고는 소비자가 최소한의 환경적, 사회적 영향 하에 양식된 제품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보증함

그림 2. ASC 인증 로고(좌) 및 ASC 인증 로고가 부착된 제품(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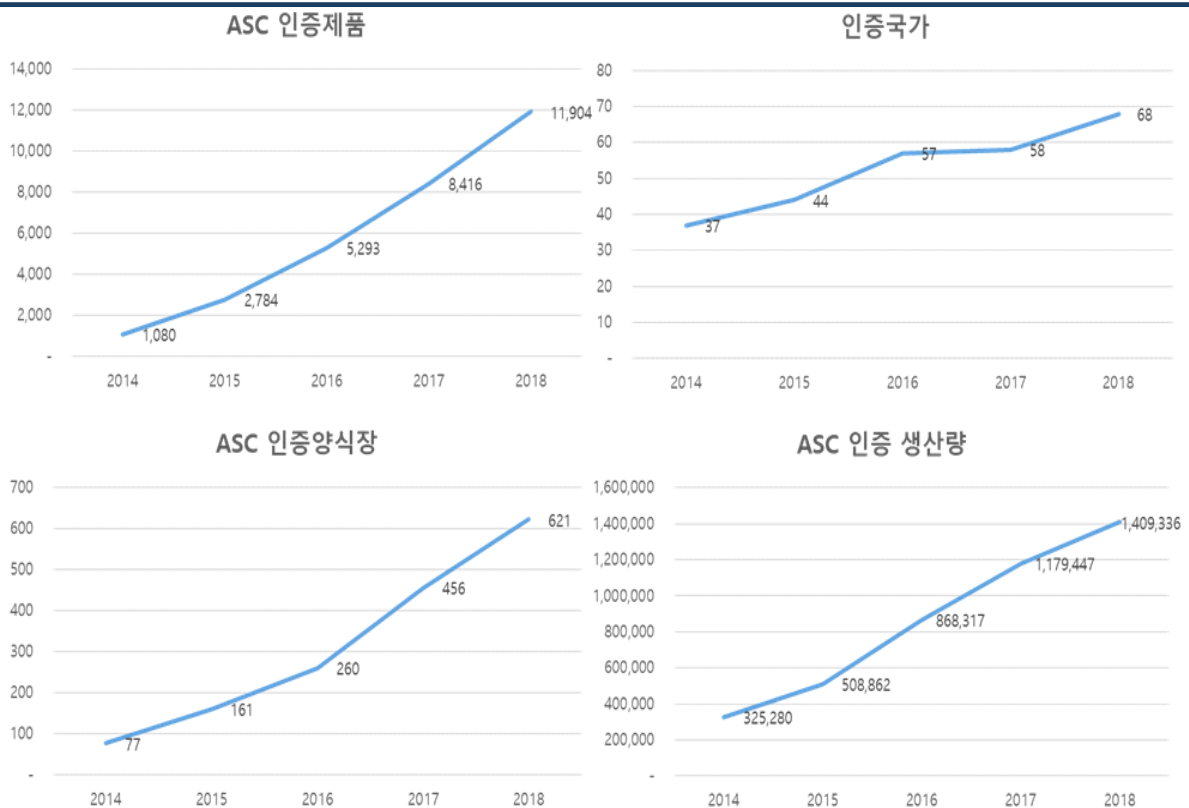


자료(좌): ASC 홈페이지(<https://www.asc-aqua.org/our-logo/logo-user-guide/>)(2018. 5. 9. 검색)

자료(우): Aquaculture Directory. 「The first ASC certified shrimp products available in time for Christmas」.
<http://aquaculturedirectory.co.uk/first-asc-certified-shrimp-products-available-time-christmas/>(2018.5.9. 검색)

- 2018년 5월 기준, 621개의 ASC 인증 양식장에서 8개 품종(연어, 새우, 조개류, 송어, 틸라피아, 메기, 방어, 전복) 1,409,336톤의 양식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음
- ASC 인증 제품은 68개국 11,904개로 빠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네덜란드 1,770개(15%), 독일 1,664개(14%), 벨기에 1,231개(10%) 등 유럽국가가 80% 이상을 차지함. 아시아에서는 일본 294개(2%), 중국 258개(2%), 홍콩 132개(1%), 싱가포르 111개(1%)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의 경우 총 29종의 수입수산물이 ASC 제품으로 유통되고 있음
- 그림 3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ASC 양식장 1개소당 평균 2,270톤을 생산하며 이는 비교적 규모화된 양식업체를 중심으로 인증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그림 3. ASC 인증 관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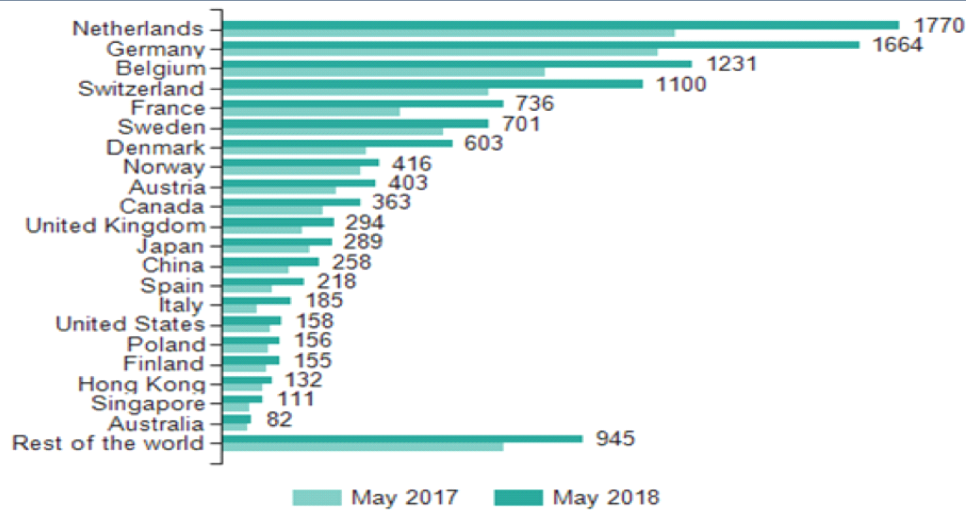


자료: ASC 홈페이지(<https://www.asc-aqua.org/news/certification-update/>)를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 (2018. 6. 4. 검색)

- ASC 보고에 따르면,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등 주요 북유럽 시장에서 ASC 인증 제품의 절반이 출시되었음³⁾

3) <https://www.asc-aqua.org/wp-content/uploads/2017/07/ASC-STRATEGIC-PLAN-2015-2017.pdf> (2018.6.4. 검색)

그림 4. 국가별 ASC 인증 제품 현황(2018년 5월 기준)



자료: ASC 홈페이지(<https://mailchi.mp/asc-aqua/xr162vrjqvq-2118633?e=9ebd51a70d>) (2018. 5. 11. 검색)

■ ASC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시장 수요 증가

-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ASC 인증은 북미 및 아시아 지역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으며 건전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커지면서 글로벌 호텔 및 외식 기업을 중심으로 ASC 인증 제품의 사용 의무화 움직임이 확대됨
- 하얏트 호텔(Hyatt Hotels Corporation)은 식자재 구매를 위한 글로벌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체 수산물 식자재 구입의 15% 이상을 ASC와 같은 지속가능생산 제품으로 구입하도록 의무화함⁴⁾
- 상그릴라 호텔(Shangri La hotel group)과 미국 참치전문레스토랑 밤부스시(Bamboo Sushi)는 식재료에서 ASC 인증 수산물이 사용된 경우 메뉴판에 이를 별도 표기하고 있음⁵⁾
- 월마트와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업체는 지속가능양식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국제양식규범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 2025년까지 월마트는 판매되는 양식 수산물의 전부를 지속가능양식 인증 제품이나 양식개선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어가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발표함⁷⁾
- 코스트코는 취급중인 틸라피아 전부를 ASC 인증 제품으로 대체하였으며 국제자연기금(WWF)과 같은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양식개선프로그램(AIP)을 지원하고 있음⁸⁾

4) Hyatt Corporation, 『Hyatt Announces Major Global Initiative to Source Seafood Responsibly in Partnership With World Wildlife Fund』, <http://newsroom.hyatt.com/Hyatt-Announces-Major-Global-Initiative-to-Source-Seafood-Responsibly-in-Partnership-With-World-Wildlife-Fund> 참조 (2018. 5. 9. 검색)

5)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shangri-la-hotel-group-to-finish-msc-certification-in-june-for-mainland-properties> 참조 (2018. 5. 11. 검색)

6) IntraFish, 『Oregon sushi restaurant first to carry ASC logo on menu in US』, <http://www.intrafish.com/marketplace/1475873/oregon-sushi-restaurant-first-to-carry-asc-logo-on-menu-in-us> 참조 (2018. 5. 11. 검색)

7) <https://corporate.walmart.com/policies> (2018. 5. 15. 검색)

8) Costco Wholesale Corporation, 『Sustainable Fisheries』, <https://www.costco.com/sustainability-fisheries.html> (2018. 5. 15. 검색)

- 세계적인 대형 할인점 까르푸(Carrefour)는 향후 취급하는 모든 선어(fresh fish)의 경우 ASC 또는 MSC 인증을 받은 수산물이 될 것임을 밝힘⁹⁾
- 2020년 도쿄 올림픽 조직위는 선수단 급식 식자재를 전량 지속가능양식 수산물 인증 제품과 양식개 선프로그램(AIP) 참여 제품으로 사용하여 지속가능양식을 지지할 것임¹⁰⁾

국제양식규범 준수를 위한 소비자 참여 확대에 양식업계 적극적 대응 필요

■ 국내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내외 시장 및 국내여건을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 필요

- 국제양식규범의 확산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제고로 기존양식에서 지속가능양식으로의 전환은 필수적임. 1차적으로 주력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ASC 인증제 확산에 따른 대응이 요구됨
- 지난해 미화 5억 불 이상 수출했던 김의 경우 ASC 인증제가 정착중인 일본과 미국이 주력 시장으로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표 2. 국산 김수출 변화 추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물량 (톤)	금액 (천\$)	물량 (톤)	금액 (천\$)	물량 (톤)	금액 (천\$)	물량 (톤)	금액 (천\$)	물량 (톤)	금액 (천\$)
전체	15,908	251,694	15,556	274,390	17,694	304,868	17,835	353,016	21,231	513,246
1 일본	2,557	58,628	2,623	59,104	2,530	51,181	3,371	78,294	4,144	114,763
2 중국	1,286	33,006	1,734	45,257	2,468	66,422	2,601	68,221	3,194	88,929
3 미국	5,134	67,300	4,708	70,917	4,808	71,512	3,744	70,331	4,059	86,581
4 태국	2,464	36,630	2,137	32,460	2,635	38,105	3,196	55,123	3,429	72,904
5 대만	515	10,176	503	11,006	817	15,864	924	18,947	1,268	33,009
6 러시아	258	5,249	295	6,140	203	4,488	197	4,360	654	18,209
7 캐나다	639	9,360	569	11,095	530	10,659	643	11,653	756	17,005
8 호주	541	4,079	499	4,992	725	6,223	536	5,649	473	8,559
9 베트남	103	1,556	152	2,809	185	3,761	248	5,062	330	7,136
10 홍콩	273	7,102	340	8,743	342	9,213	268	6,954	265	7,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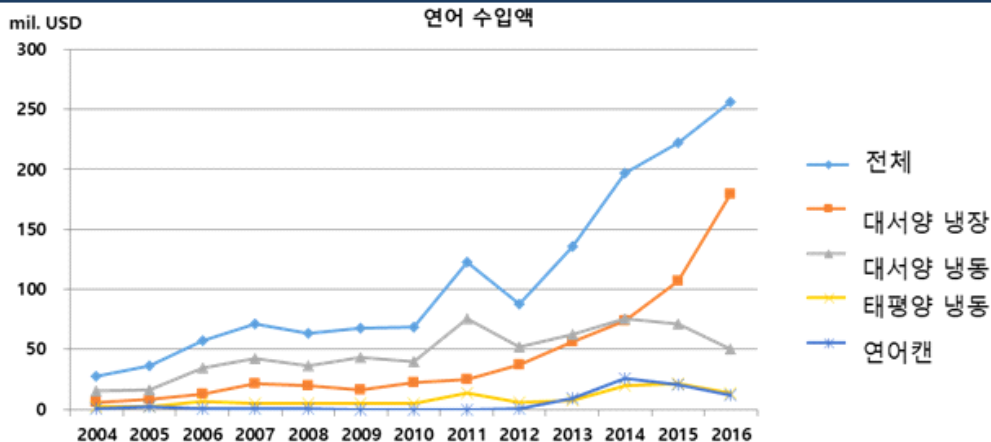
자료: KMI 해외시장정보센터 내부자료

- 수산물 내수시장의 경우 현재까지 ASC 인증제에 대한 인지도는 미미한 편이나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의 증가와 함께 외국계 유통 업체의 ASC 취급 품목 확대에 따라 ASC 인증 및 지속가능양식에 대한 인식이 제고 될 것으로 예상됨

9) <https://www.seafoodsource.com/features/retailers-make-big-promises-during-france-s-sustainable-seafood-week> 참조 (2018. 5. 11. 검색)

10) Seafood Legacy, "Understanding The Tokyo 2020 "Sustainable Sourcing Code for Fishery Products", http://seafoodlegacy.com/en/blog_en/20170414-1284.html (2018. 5. 9. 검색)

그림 5. 연도별 연어 수입액 변화



자료: UN comtrad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https://comtrade.un.org/>

- ASC 내부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까지 ASC 인증 품목을 2017년 대비 4배까지 늘릴 예정이며 현재 3개 지부(유럽, 미국, 아시아 태평양)로 구성된 조직을 7개 지부(북미, 남미, 유럽, 극동 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및 태평양)로 확장하여 ASC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임¹¹⁾
- ASC는 또한 타인증 단체 및 환경 단체와 연계하여 지속가능양식의 중요성을 시민사회에 알릴 예정이며 그 결과 기존양식의 폐해가 심각한 품목의 경우 국내 소비자의 외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 기존 양식에서 지속가능양식으로의 다각적인 전환 노력 필요

- 해조류 ASC 인증 기준의 경우 국내 김양식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활성처리제 및 무기산 사용이 허용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또 다른 지속가능양식 인증제인 FOS 인증의 경우 무기산은 금지하고 있으나 제한된 범위의 활성처리제 사용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음
- EU organic 기준의 경우 보다 보수적인 접근을 하여 화학적 방식의 산처리는 허용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장흥지역에서 행해지는 것과 같은 기계적 방식의 처리만 허용하고 있음
- 독일의 Naturland 유기농 기준의 경우 해조류 대상 품종을 스피루리나와 크로켈라로 가정하여 보다 엄격한 생산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국제양식규범 기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국내 업계는 지속가능양식을 위한 생산 체계의 변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함

11) <https://www.asc-aqua.org/wp-content/uploads/2017/07/ASC-STRATEGIC-PLAN-2015-2017.pdf>(2018. 6. 4. 검색)

표 3. 해조류 ASC 인증 구성 요소 비교 결과

인증주체	해조류 ASC 인증 구성 분야				
	지속가능한 자원	환경영향	효과적 관리	사회적 책무	지역사회 관계
ASC	○	○	○	○	○
Friend of the Sea	○	○	○	○	○
EU Organic	○	○	-	-	-
Soil Association	○	○	○	○	-
USDA Organic	신유기양식 규정 제정중				
IOFAG	○	○	-	-	-
Naturland	○	○	-	○	○
Seafood Watch	○	○	○	-	-
AFRISCO	-	○	○	○	-
KRAV	-	○	○	○	-
Organic Pasifika	-	○	○	○	-
Organic Farmers and Growers	○	○	○	-	○
ECOCERT	○	○	○		
Asure Quality		○	○	○	○
Australia Certified Organic	○	○	○	○	-
BioGro	○	○	○	○	○
FairWild	○	○	○	○	-
Standards Council of Canada	○	○	-	-	-

자료: http://seagriculture.eu/wp-content/upload_folders/seagriculture.eu/2016/10/2.2-Dan-Hoggarth-Development-of-a-joint-MSC-ASC-standard.pdf 내용 필자 정리 (2018. 6. 1. 검색)

* 각 분야별 세부 인증 항목 존재

국내 김양식, ASC 인증기준 충족 미흡

■ ASC 해조류 기준 도입을 위한 5가지 선결 사항

- ASC 해조류 기준을 국내 김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목표시장, 비용 문제, 종문제, 활성처리제 문제, 해조류 가공 유통 부문의 관리연속성(Chain of Custody, CoC) 인증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함
- 목표 시장의 경우 2017년 국내 김생산량의 36%를 해외에 수출하고 그 중 절반이 일본과 미국 등 ASC 선호 시장을 목표하고 있어, ASC 인증 제품의 수요시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용문제와 관련하여 단체 인증 등 개별 어가의 비용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대두되고 있으며, ASC 라벨 로열티의 경우 인증 라벨을 부착하는 가공 및 유통업체에서 부담하고 양식 생산어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종문제의 경우 현재 10여종의 품종보호권 출현종이 있으며 외래종의 경우 도입한지 20년이 지난 경우 ASC 인증 대상이 될 수 있음

- ASC 해조류 인증 기준은 원칙적으로 화학적 처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사과산이나 고염수 등 자연유래물질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여 ASC 측과 관련 협의가 필요함. 그리고 지주식이나 노출부류식 김의 경우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ASC 인증 대상임
- 물김생산, 마른김 가공, 조미김 가공 등 분업화된 국내 김생산·가공 산업구조를 고려해 볼 때 ASC 인증을 위해서는 국내 업계의 가공 유통 부문 CoC 인증이 필수적임

■ ASC 시뮬레이션 결과 국내 친환경 김양식 방법도 ASC 기준을 넘을 수 없었음

- ASC 해조류 기준 도입을 위한 선결사항이 모두 충족된다는 가정하에서 가상적인 양식장을 대상으로 한 양식 방법별(지주식, 노출부류식, 무노출부류식) ASC 기준 적용 시뮬레이션을 실시함
- 김양식 방법별 ASC 해조류 기준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 모든 김양식 방식이 ASC 인증을 취득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환경관련 영향은 최대 2개의 미달성 허용 조건이 있지만 각 양식법이 모두 5개 이상의 미달성 항목을 기록하여 ASC 기준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남
- 미달된 항목을 살펴보면 제도¹²⁾와 운영에 관한 항목으로 양식개선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면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표 4. 국내 김양식 방법별 ASC 해조류 기준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

원칙	허용 조건	지주식 김양식	노출부류식 김양식	무노출부류식 김양식
원칙 1 지속가능한 자연산 개체군	0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원칙 2 환경적 영향	2	5	6	5
원칙 3 효과적인 관리	1	0	0	0
원칙 4 사회적 책임성	2	1	0	1
원칙 5 지역사회 관계 및 상호작용	2	2	1	2
합계	7	8	7	8

12)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관리 방안 수립, 에너지 사용 기록 등 관리적 측면 항목 등

국제양식규범과 국내 현실과의 간격을 메워줄 현명한 노력 필요

■ 양식개선 프로그램(Aquaculture Improvement Program) 도입 필요

- 시뮬레이션 결과 ASC 인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국내 양식장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한계적인 상황을 맞고 있는 양식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속가능양식으로의 전환은 어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가 될 수 있음.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식개선 프로그램(AIP)이 해법으로 제시됨
- AIP는 지역 양식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사회 문제에 대해 관련 이해당사자가 모여 해결하는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임. 구체적으로 AIP는 지역 양식 어가, 조합, 환경관련 NGO, 정부 당국자, 과학자 등이 모여 지역 양식 현안을 해결하고 개선을 위한 포럼 역할을 함¹³⁾
- AIP는 기존의 지속가능양식 인증 기준(ASC, FOS 등)을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도구로 활용하며 인증 기준 충족을 위한 로드맵 마련, 펀드레이징, 역할 분담, 이행 투명성 확보 등을 담당함
- 지속가능양식 인증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는 인증제품의 범주에 AIP 수행 어가의 생산 수산물을 포함하여 지속가능양식 전환의 과도기에 있는 어가를 간접 지원하고 있음
- AIP는 지역 어가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가동됨으로써 지역 사회의 협조를 확보할 수 있고 환경단체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지역 활동가가 부족한 부분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개선 프로그램 완성을 촉진시킬 수 있음
- 구체적으로 AIP는 ASC 그룹인증 모델, 지역시범사업 모델, 지역 인증 모델(Full zone to ASC), 품종 인증 모델(협회 및 지구 중심) 등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AIP 참여 주체의 성격에 따라 상향식으로 모델을 재설정할 수 있음¹⁴⁾

■ 양식수산물 민간인증 기준 제정 적극 참여 필요

- AIP를 통한 국내 김양식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국내의 김양식 특성을 ASC 해조류 기준에 반영하는 노력 필요
- ASC 해조류 기준의 경우 2017년 11월에 제정되고 2018년 3월에 발효되었음. 이후 ASC 해조류 기준은 현장 적용 과정을 거쳐 2019년 3월에 재개정되며 이후 5년간 정기 개정 절차를 거침
- ASC 해조류 기준 완성 과정에 ASC 해조류 기준위원회와 협의하여 국내 특성을 반영하는 개선안 제시 필요

13) WWF, 『Aquaculture Improvement Projects: A stepwise approach to sustainability』, <http://seafoodsustainability.org/aquaculture/> (2018. 6. 1. 검색)

14) Sustainable Fisheries Partnership, 『Aquaculture Improvement Projects』, <https://www.sustainablefish.org/Programs/Aquaculture/Aquaculture-Improvement-Projects> (2018. 6. 1. 검색)

■ 국내외 시장에서 신뢰를 받는 민간 주도형 친환경 양식 인증제 추진

- ASC 해조류 기준은 국제 양식규범에 바탕을 둔 민간 인증 기준이며, 해외 유명 식품 유통 채널에서는 ASC만을 친환경 인증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FAO 등에서 제시한 국제양식규범을 준수하는 모든 인증제를 친환경 인증으로 인정하고 있음
- ASC 인증이 고비용 구조의 인증제임을 고려할 때 국제양식규범에 기반한 저비용·민간주도형 인증제의 창설도 고려 사항임
- ASC 인증제의 성공적 정착 요인이 업계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투명성을 확보한 것임을 고려할 때 소비자, 생산자, 시민단체, 환경단체, 유통업계, 지자체,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 양식 인증제 추진이 필요함

KMI 현안연구 요약보고서

구분	제목	발행일
제1호	미얀마 수산 성장 엔진, 국립수산대학 설립 ODA 사업으로 밝혀야	2018.10.12.
제2호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구상 연구	2018.10.12.
제3호	청년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물류인력 양성 서둘러야	2018.10.13.
제4호	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	2018.10.18.
제5호	자율운항선박으로 스마트 디지털 해상물류체계 실현	2018.10.18.

URL: <https://www.kmi.re.kr/>